

전남,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선정

영광 산학협력지구 국비 100억 확보...규제특례·세금 감면 등 혜택 클러스터 단지·특화공원 조성...수출·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의 e-모빌리티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약 1511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남도는 앞으로 해외 바이어 유치·주한대사관 초청·해외수출지원단 등을 통해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건폐율 완화, 인허가의 제 등 규제특례 73종과, 법인세, 개발부담금 등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클러스터 단지와 함께 e-모빌리티 복합단지(복합클러스터), 특화공원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685억원(국

비 100억·지방비 385억·기타 200억)을 투입해 2026년까지 총 23만 7148㎡ 규모로 조성된다. 영광 대마전자자동차 제2산단을 조성(332억원)하고, e-모빌리티 콤플렉스(51억원)를 인력양성센터, 해외수출지원단, 자기인증 지원시스템 등과 함께 구축해 해외 수출 지원과 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특화공원(52억원)에는 체험·경진대회 트랙을 조성한다.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Formula, Baja)를 유치하는 등 산업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클러스터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50억

원) 150호를 마련해 기업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e-모빌리티 관련 기업 유치 여건도 조성된다.

전남도는 실의성능시험장, 아-모빌리티 연구센터, 초소형전자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등 기반 구축부터 산업 확산까지 단계별로 총 15개 사업에 3300여억원을 확보해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조성할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와 연계해 전남을 e-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끌 예정이다.

김중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아-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선정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이-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유치 등 클러스터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폭염 비상 대응' 총력 체제

의료기관 긴급구조체계 구축...축산·양식장 비상연락망 가동

전남도가 폭염 비상 상황으로 판단, 총력 대응 체제로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폭염대응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축산·수산 피해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분야별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폭염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는 폭우가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폭염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르신은 모든 재난과 재해에 가장 취약하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낮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도록 안내하고, 마을경로당에 8-9월 두 달간 개소당 30만 원씩 냉

방비를 추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축산식품 분야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가 없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등 상황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 대책에 대해 "현재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만큼 고수온 대응장비 등을 신속히 보급해 수산 분야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119 긴급대난 도우미 등을 활용해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뤄지도록 긴급구조체계를 갖추라"며 응급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 할인

9월까지 최대 30%...10월 12일 개최 12개 전시관 운영

전남도가 올해 6회째인 '2023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입장권 사전 할인판매에 나선다. 최대 30%를 할인하고, 예매로만 살 수 있는 가족권을 만들어 대폭 가격을 낮췄다.

박람회는 3개 구역 12개 전시·체험·판매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 구역은 2개 관으로, 지구지유관은 저탄소 농업기술, 유기농친환경, 순환농업,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보여준다. 인간지유관은 반려동물·식품, 음식, 농업의 소리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로 구현된다.

치유농업체험관 구역은 치유텃밭정원, 향기치유체험관, 반려동물관, 농업문화놀이터 등 4개관이 조성된다.

홍보판매관 구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판로 확

장을 위한 비즈니스 장이다. 7개국 25개사가 디지털 농업을 선보이는 글로벌홍보관과 농업미래관, 농식품관, 남도음식관, 첨단농기계시연장, 농기자재관으로 구성된다. 또 국내외 심포지엄 5건이 열리고, 우리쌀·밀 제과제빵 경진대회 등 체험활동 24가지가 펼쳐진다.

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가치와 치유농업을 선보일 것"이라며 "사전 구매자의 기대에 부응토록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옆)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광주시대표단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녹색당 중앙당사에서 하이코 크논 녹색당 중앙당 부대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어린이 '무임 대중교통' 도입되나

강기정 시장, 독일 녹색당 부대표와 에너지·교통 정책 등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해 유럽에서 에너지·대중교통 등 친환경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크논(Heiko Knopf) 녹색당 중앙당 부대표를 만나 독일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킨 '월 49유로 티켓' 등 친환경 에너지·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크논 부대표는 광학으로 유명한 도시인 예나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과학자이자 녹색당의 대표

적인 청년 정치인이다. 독일은 일명 49유로 티켓(약 7만원)으로 불리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보다 30%정도 저렴한 교통비로 지하철·버스·트램 등 전국의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통한 환경 보호, 독일 교통 티켓 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시장과 크논 부대표는 이용객 반응과 재정 운영 현황, 광주시 대중교통 정책 등을 논의했다.

크논 부대표는 "연방정부의 연정 상대인 시민당·녹색당·자민당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고 에너지 감축을 위한 보완책으로 대중교통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무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속도'

이달 중 사업추진단 구성

광주시가 정부의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선정 후속 절차로 사업추진단 구성에 나섰다.

광주시는 1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 등 특화단지 기획에 참여한 6개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달 중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 구성을 검토함에 따라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앵커기업 참여, 지역 부품기업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자율차 부품으로 기술 전환하고 핵심 소재부품 자립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장비구축·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테스트베드를 통한 자율차 부품 실증 지원 체계 구축, 미래차 특화교육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8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지난 3월 신규 지정된 미래 차 국가산단을 연계하고,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 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